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한국 군수산업체의 성장

최영진

지리정치경제학 연구자

미국 국방성 군사박물관 소장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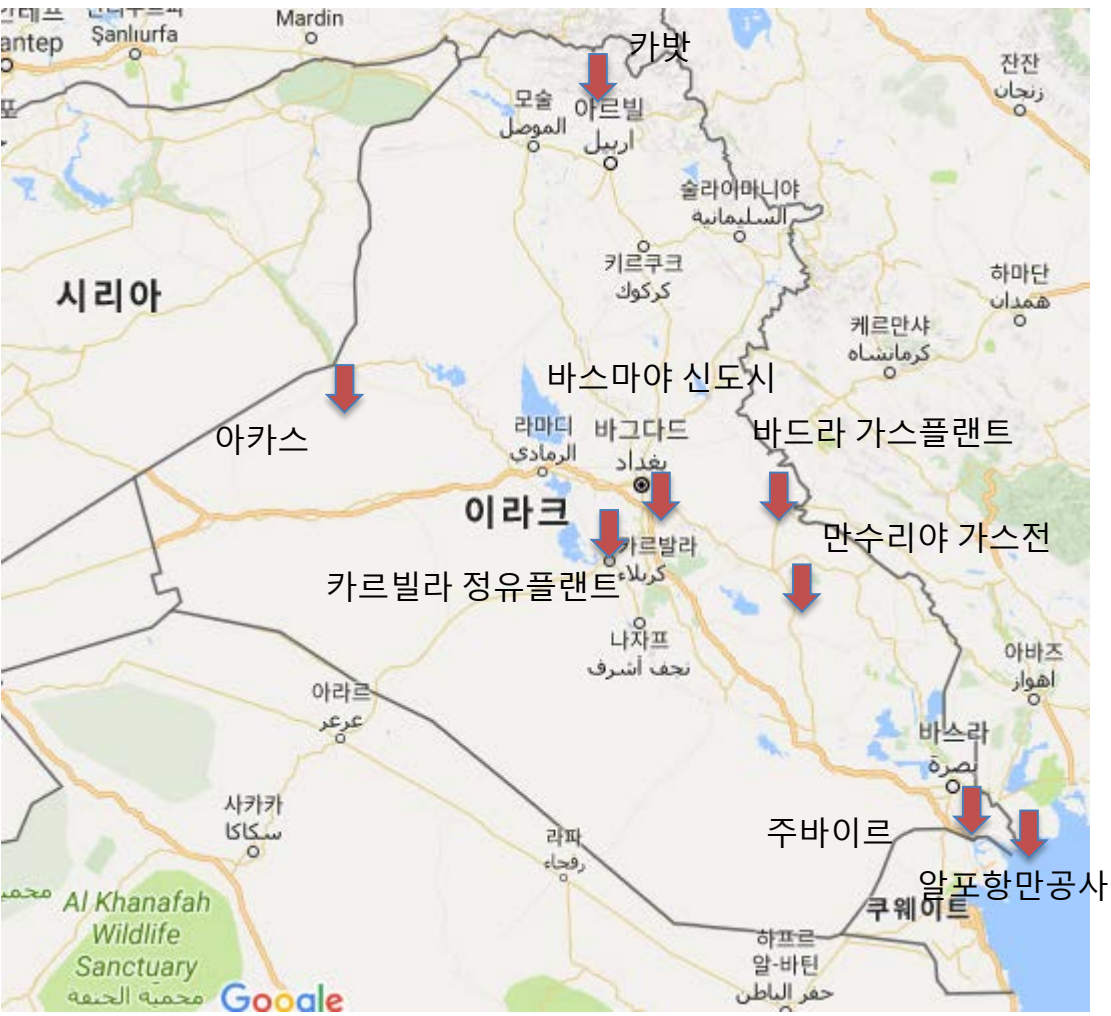


한진은 베트남전 미국의 해외조달사업(OSP)에서 보급 용역을 담당.
민간 용역 업체로서는 업적이 현저해 이를 기념함.

“이라크에서 터진 금맥...한국기업들 웃는다.”

조선일보. 2014.5.30일자

- 이라크전쟁: 2003년 – 2011년 12월 종전 선언
- 2014년 상반기 20여건 공사 이라크 80억 달러, 쿠웨이트 71억 달러
- 이라크 정부의 재건사업 예산 : 2017년까지 2750억 달러 (300조원)



2013-4년 주요 공사 수주 현황

공사명	수주기업 (10억 달러)
알 포 항만 방파제 공사	대우건설 (70억 달러)
아카스 천연가스시설	대우건설 (7.9)
주바이르 가스오일 분리 시설	대우건설 (5.5)
주바이르 석유시설	삼성엔지니어링 (8.4)
바드라 가스 시설	삼성엔지니어링
바스마야 신도시	한화건설(7.5)
카밧 화력발전소	포스코건설
카르빌라 정유시설	GS E&C, 현대E&C, SK E&C (60)
19개 도시 스마트그리드 공사	LS산전 (0.5)

이라크 카발라 정유공장 (600억달러 60조원)

IRAQ Karbala Refinery Project L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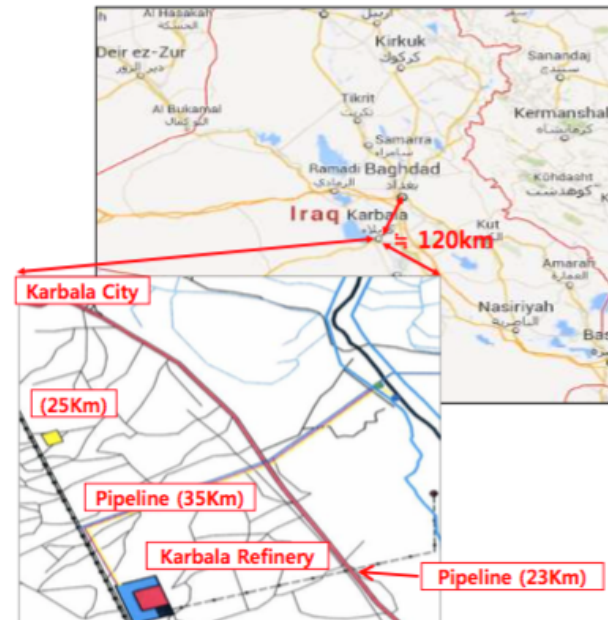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 ❖ As a consortium member, GS E&C have received LOA for its first refinery project in Iraq from *SCOP with Hyundai E&C (Iraqi experienced) and SK E&C (Strong in refinery). GS E&C has gained a foothold in the Iraqi market and expect to participate forthcoming oil & gas projects and reconstruction projects in post-war Iraq.

Overview

Project	IRAQ Karbala Refinery Project
Location	120km South from Baghdad, Karbala Province
Client	Oil Ministry's State Company for Oil Projects (*SCOP)
Financing Source	Client Own Fund
Overview	-HYUNDAI: FCC, PNU, KHT, DHT, Pipeline, Offsite -GS: CDU/VDU (140,000/75,000 BPSD), NHT, Isomer, CCR, Tank Farm -SK: Utilities (with Power Generation)
Contract Type	EPCC LSTK
Consortium	HYUNDAI (leader, 37.5%) + GS(37.5%) + SK(25%)
Period	54 Months
Contract Amount	Total : USD 60.4 Billion (GS : USD 22.65 Billion)
Payment	Milestone + Progress Payment

Location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

이라크 국가 투자 위원회/ 한화 E&C, 공사비 77억 달러 (7조2000억원)
바그다드 외곽, 분당급 10만호 주택, 60만명 인구 규모, 공사기간 7년



Area Size

1,830ha

‘민간’과 ‘군사’의 구분이 가능할까

- 민간 영역과 군사 영역 간의 경계의 불확실함 (데보라 코웬)
 - 전쟁과 비즈니스의 뒤얽힘
 - 현대전의 중심세력으로서 민간 군사 기업의 부상
 - 군산복합체의 전면적인 영향력(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고별연설)
 - 영구적인 전쟁 경제

베트남전쟁

투입된 미군 총수	약 3,000,000 명
부상자 총수	약 330,000명
고엽제 환자수	약 800,000명

베트남 피해 현황 *추정치	
군인 전사자	1,100,000명
군인 부상자	2,600,000명
민간인 사망자	1,500,000명
민간인 부상자	3,000,000명

미군 전사자 비교	
2차 세계대전	291,557 명
한국전쟁	36,940 명
베트남전쟁	53,402 명

미국의 전쟁 비용	
2차 세계대전	3,410억 달러
한국전쟁	540억
베트남전쟁	1,400억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한국군 피해 현황 (1965-72년)	
파병 총수	312,848 명
전사자 수	5,099명
부상자 수	10,962명

참전국 별 전.사망자 수	
미국	58,193
한국	5,099
타일랜드	350
오스트레일리아	520
뉴질랜드	39
필리핀	0
대만	0
스페인	0

출처: 최용호, 2007,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의 영향

- 안보 강화와 자주국방의 토대 마련
(브라운각서의 내용).
 -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 보장
 - 미국의 적극적 군사원조로 장비 현대화(1971-77년):
무상 9억88백만 달러, FMS차관 5억28백만 달러
총 15억16.2백만 달러
 - 1972년 M16자동소총 공장 건설

베트남전 파병의 영향

- 거액의 외화(약 50억 달러)는 경제 성장의 밑천.
 - 미군 군무원조(1965-73년): 16.4억 달러
 - 미국의 파병 한국군 수당, 물자구매, 경비 지출: 5억 4600만 달러
 - 베트남전 해외조달사업으로 한국기업의 수입:
10억36백만 달러
 - 한국에 제공된 차관 등: 20억 달러
- 비교: 대일 청구권자금 8억 달러

파월 기술자 모집- “진보를 위한 동맹”

- 한국해외개발공사 주관
- 빈넬, RMK-BRJ (The Halliburton subsidiary Raymond, Morrison-Knudsen, Brown & Root and J.A. Jones)
- 월급 530-580달러: 노동자 평균 임금의 15배

연도	계	한국회사	외국회사
1965	210	105	105
1966	10021	2187	7834
1967	12947	3983	8964
1968	15571	4284	11287
1969	12619	3941	8678
1970	6736	2739	3997
1971	3145	1412	1733
1972	1707	857	850



1968년 꾸이년항 부두하역관련 파월 기술자.
69보도사진연감.

베트남 특수가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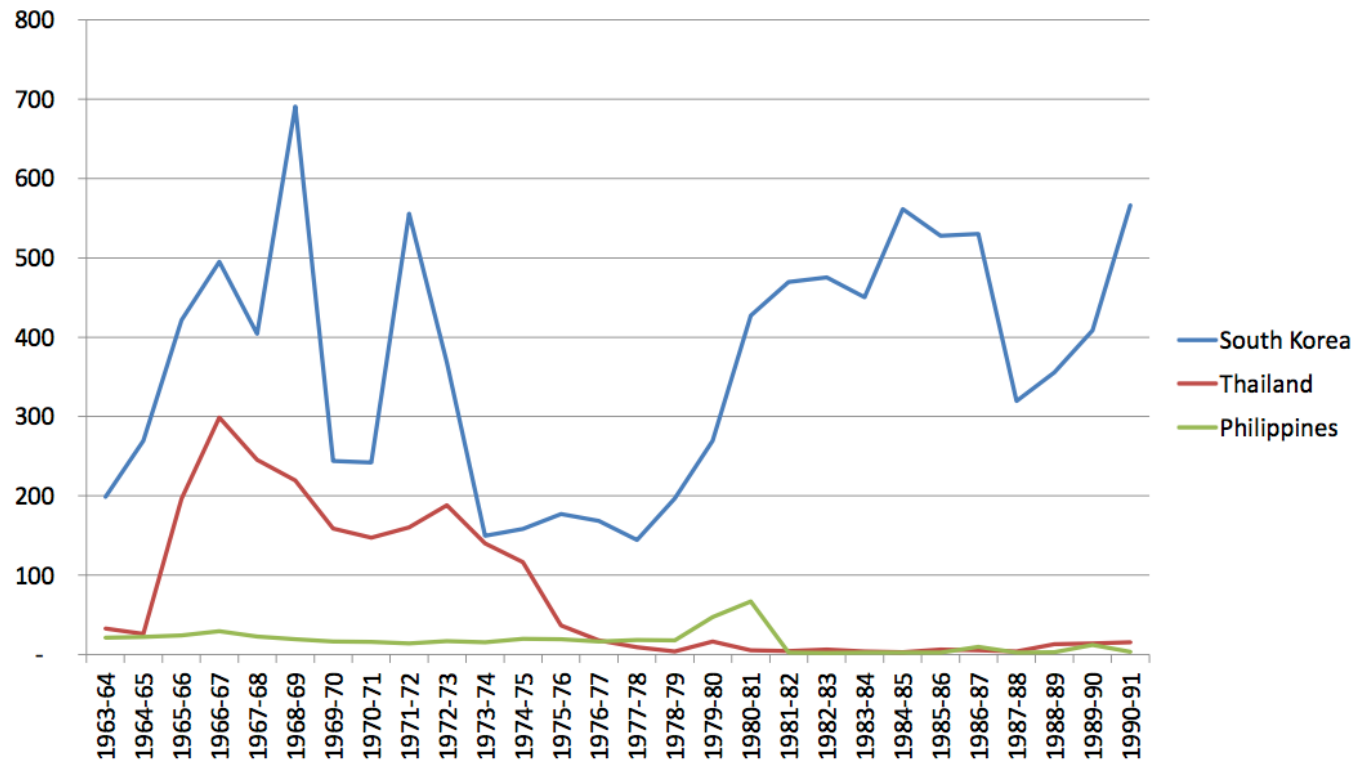
단위: 100만 달러

연도	특수총액(A)	GNP(B)	수출총액(C)	외환보유고(D)	무역외수지(E)	A/B(%)	A/C(%)	A/D(%)	A/E(%)
1965	19.5	3006	175	138	125.8	0.6%	11.1%	14.1%	15.5%
1966	81.1	3671	250	236	238.4	2.2%	32.4%	34.4%	34.0%
1967	151.3	4274	320	347	375.2	3.5%	47.3%	43.6%	40.3%
1968	168.6	5226	455	388	424.5	3.2%	37.1%	43.5%	39.7%
1969	200.4	6625	623	550	497.1	3.0%	32.2%	36.4%	40.3%
1970	204.6	7834	835	584	490.7	2.6%	24.5%	35.0%	41.7%
1971	133.3	9145	1068	535	486.6	1.5%	12.5%	24.9%	27.4%
1972	83.2	10254	1624	694	579.2	0.8%	5.1%	12.0%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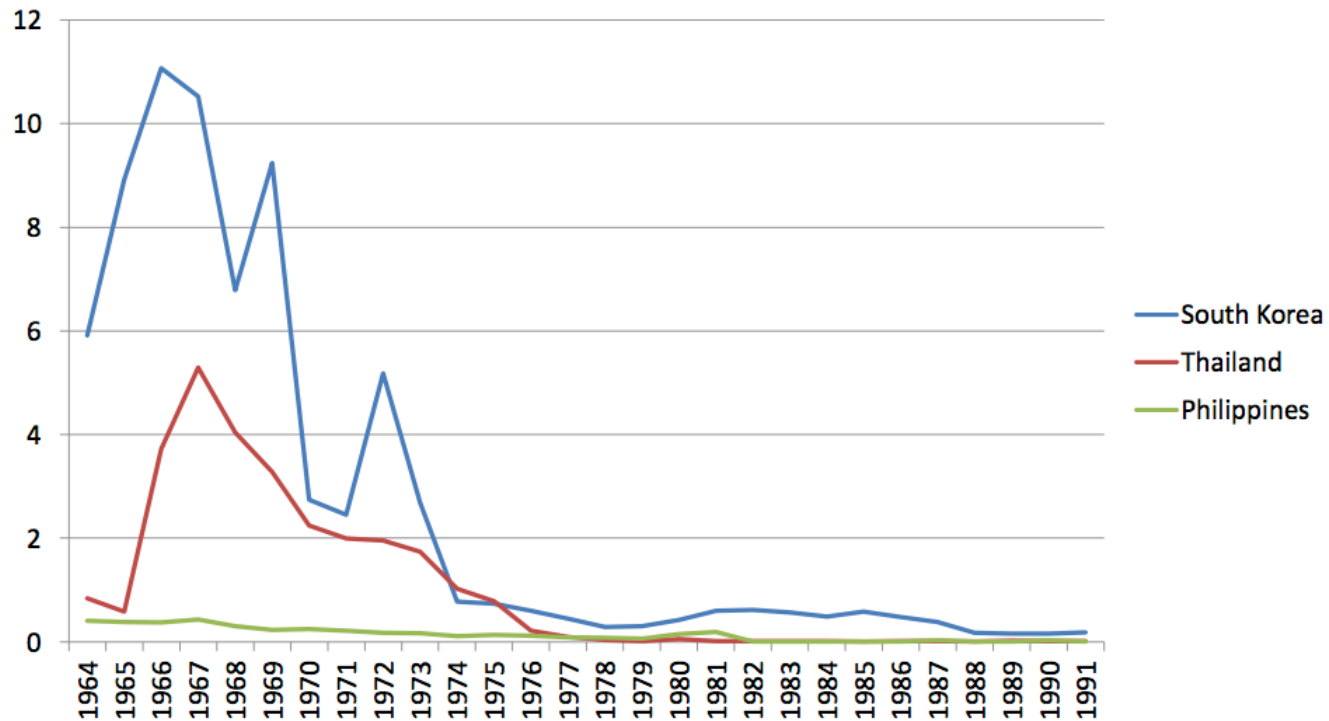
출처: 박근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베트남전쟁" 39쪽

미군 해외조달사업(OSP)과 미군지원사업(MAP) 총액 (단위:백만 달러)

Total Value of US Military Offshore Procurement Contracts
and Military Assistance Program (US\$mill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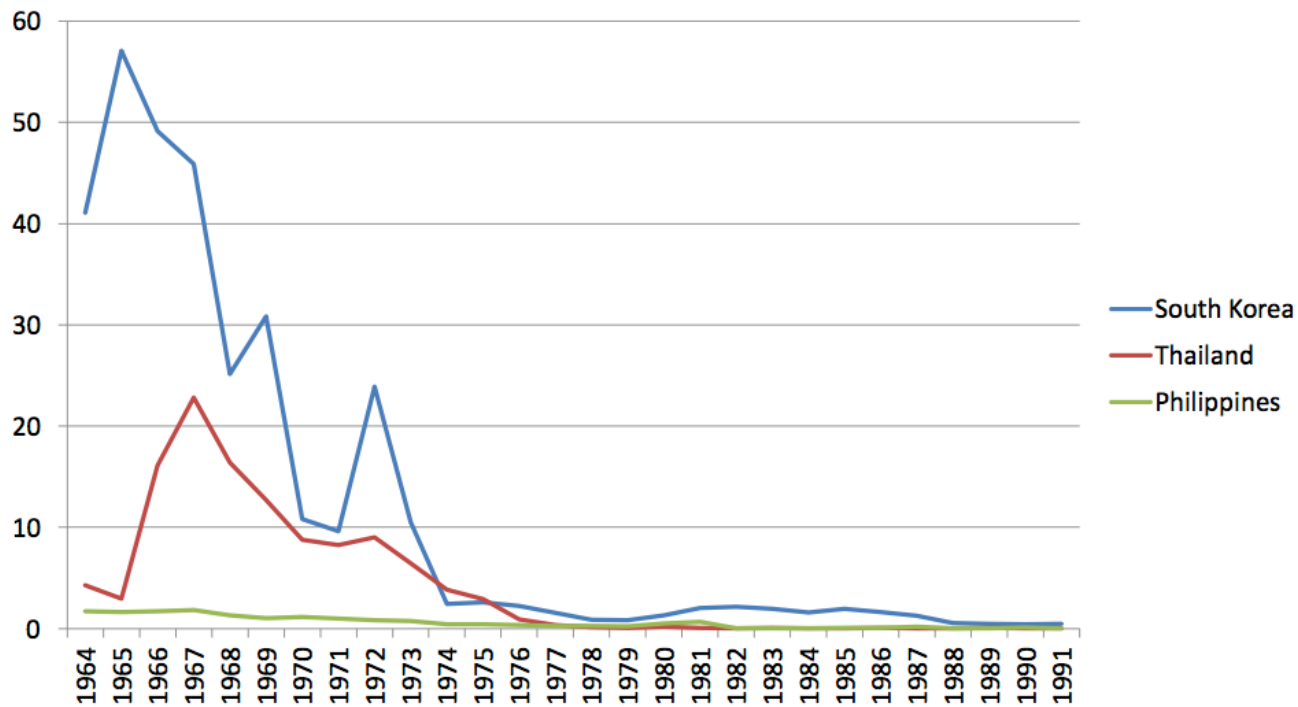


OSP and MAP as Share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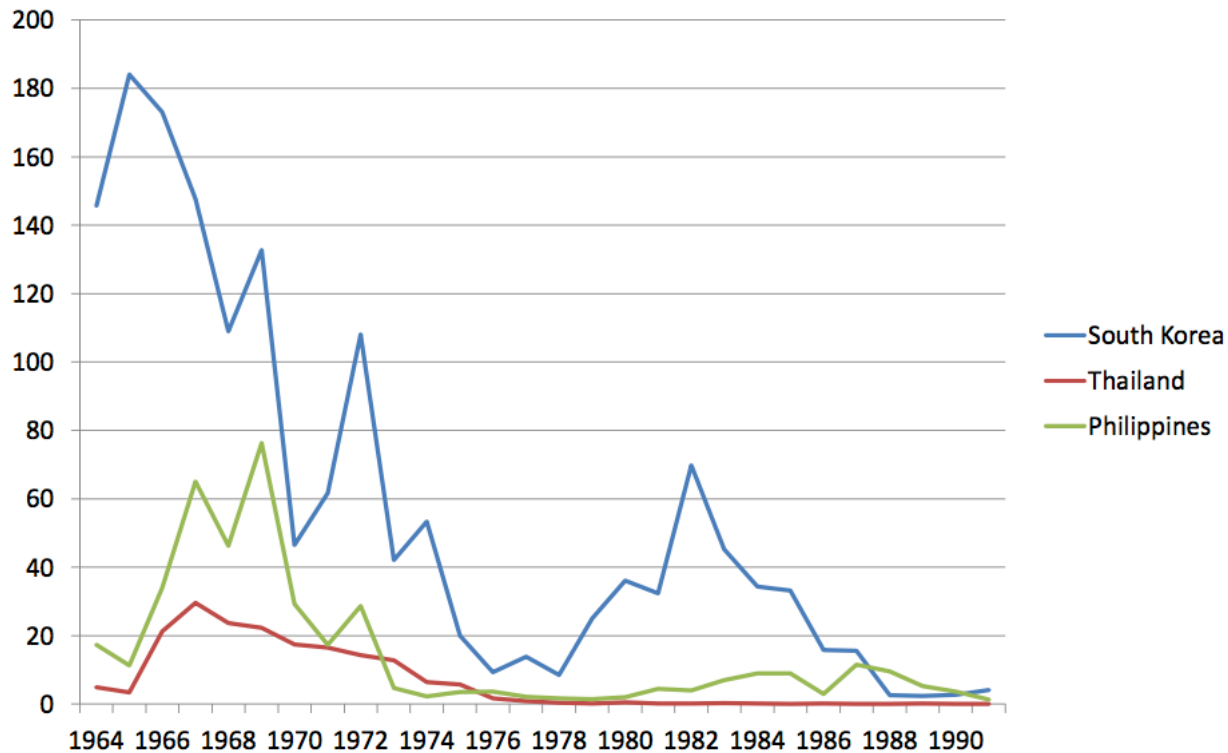
총고정자본 형성에서의 비중

OSP and MAP as Share of GFCF



외환보유고와의 비교

OSP and MAP as Share of Reserves



베트남전 참전은 한국경제 성장의 자금원

- 베트남전 관련 외환이 한국경제 성장의 밑천이 되었다?
 - 수출상대국의 비중 변화: 64년 대일 수출 (32.1%) ➔ 72년 대미 수출(50%, 섬유, 합판) 중심
 - 베트남전 계기로 20대 기업 순위 변동: 방직, 유통기업에서 베트남전 용역, 건설, 무역기업

20대 기업 순위 변동

순위	1960년	1972년	1979년
1	삼성(은행, 물산, 제당, 방직)	삼성	현대
2	삼호(방직, 무역, 은행)	럭키	럭키
3	개풍(서울은행, 대한양회)	한진	삼성
4	대한(대한방직, 제당, 전선)	신진	대우
5	럭키(금성사, 화학)	쌍용	효성
6	동양(시멘트, 제과, 제당)	현대	국제
7	극동(해운, 한국정유)	대한	한진
8	한국유리	한국화약	쌍용
9	동립산업	극동해운	한화
10	태창방직	대농	선경
11			동아
12			대한전선

베트남전은 재벌, 군수산업 중심의 성장

- 한국 경제 성장의 특성과 경로를 규정하는 계기
 - 재벌 위주의 성장, 냉전연합에 편입된 성장:
 - 경쟁이 아니라 인맥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독점에 기반한 성장 모델
- 오히려 경제성장에서 지리/지정학의 중요성을 확인
 - 냉전의 지정학에서 미군의 해외발주사업(Offshore procurement)이 한국의 기업성장에 끼친 영향
 - 베트남전 참전을 통한 동아시아 냉전연합의 결성과 공고화

군사, 정치, 경제의 삼각 동맹

-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통해 성장한다
- 전쟁을 매개로 한 계급연합의 형성
 - 미군해외조달사업(OSP: Offshore procurement),
 - 미군군수품조달사업(MAP),
 - 전후복구사업과 연관된 기업, 정부인사, 군인
- 재벌(현대), 박정희 정권,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네트워크 형성
 - 베트남전 : 현대건설
 - 중동전쟁 전후 건설사업 :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초국적 계급 연합

- 자본은 독점을 선호한다
 - 자본주의는 독점을 향한 경쟁이며, 국가 없이 성립되지 않으며,
 - 역으로 경제 축적논리로 부터 자유로운 정치체제는 환상이다(브로델, 백승욱 2006)
- 자본가는 본질적으로 초국적이다.
 - 자본은 이윤의 기회를 국민국가의 경계 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Taylor 2000:7)
 - 자본가는 본질적으로 보다 큰 스케일로 확장하고 독점권력을 획득하고자 한다(Sklair 2001)
 - 성공한 자본가는 본성적으로 민족성이 없다.

베트남전의 군사 정치 경제 동맹

- 미군산복합체 RMK-BRJ (The Halliburton subsidiary Raymond, Morrison-Knudsen, Brown & Root and J.A. Jones)
 - 미군의 베트남전 관련 공사를 독점(Carter 2008)
 - 존슨 대통령과 George and Herman Brown(Brown & Root 창업자)는 정치적으로 깊은 연관(Gardner 1995)
 - Halliburton(RMK-BRJ 모기업) 은 존슨 정부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이자 특혜받은 기업(Chatterjee 2009)
 - 현대는 RMK-BRJ 의 하청을 받음
 - 기술 및 건설 인력 고용 업체 : 해외개발공사 “진보를 위한 동맹” 리쿠르트
- 브라운 각서 : 베트남전 미군해외발주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정치적 협약

미국의 “More Flags”와 한국군의 위상

1966년 11월 24일, SEATO(마닐라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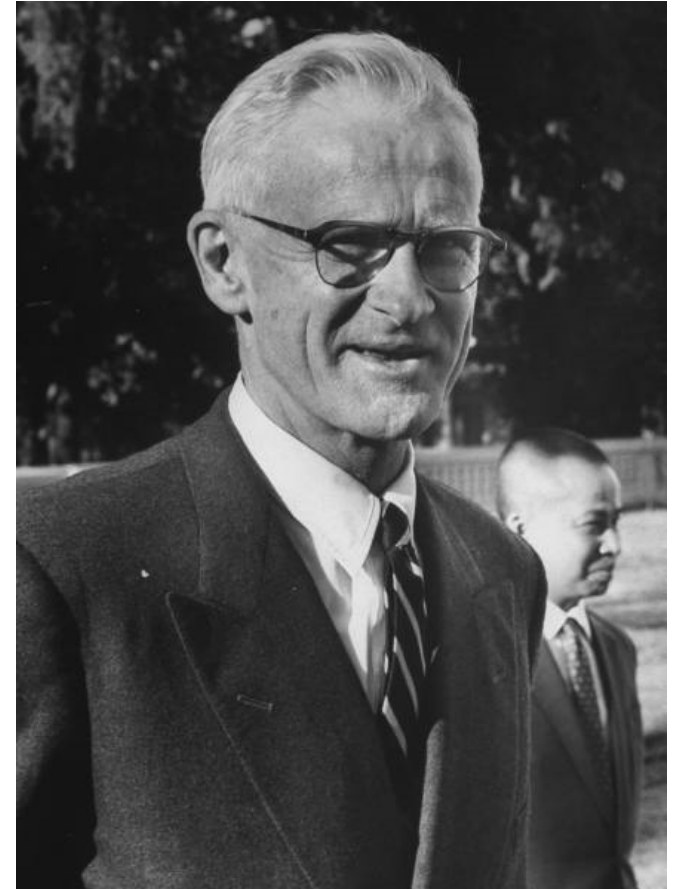
(L-R: Prime Minister Nguyen Cao Ky (South Vietnam), Prime Minister Harold Holt (Australia), President 박정희 (South Korea), President Ferdinand Marcos (Philippine), Prime Minister Keith Holyoake (New Zealand), Lt. Gen Nguyen Van Thieu (South Vietnam), Prime Minister Thanom Kittikachorn (Thailand), President Lyndon B. Johnson (United States))



Korean Vietnam War troops, Winthrop G. Brown



Citizens wave national flags to welcome Korean soldiers returning from Vietnam in this file photo. In 1973 when they finally withdrew from Vietnam, as many as 300,000 Koreans had served there.
/ Korea Times



브라운 각서

- 한국 전투병 파병에 대한 미국의 댓가
- “한국의 하청업자들이 미국정부와 미국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에 참가하고 한국인 민간기술자 고용을 포함한 그 밖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한다”(FRUS 1964-1968: Vol. XXIX, 126).
- 이는 일본 기업이 한국전에서 경쟁 없이 배타적 지위를 보장받아 경제성장을 이룩했듯이, 한국 기업 또한 베트남전과 관련된 미군의 해외조달사업(OSP)에 배타적 지위를 보장받음을 의미 (장우주 인터뷰 2011년 7월 2일; Glassman and Choi 2014).

남한 기업의 베트남전 O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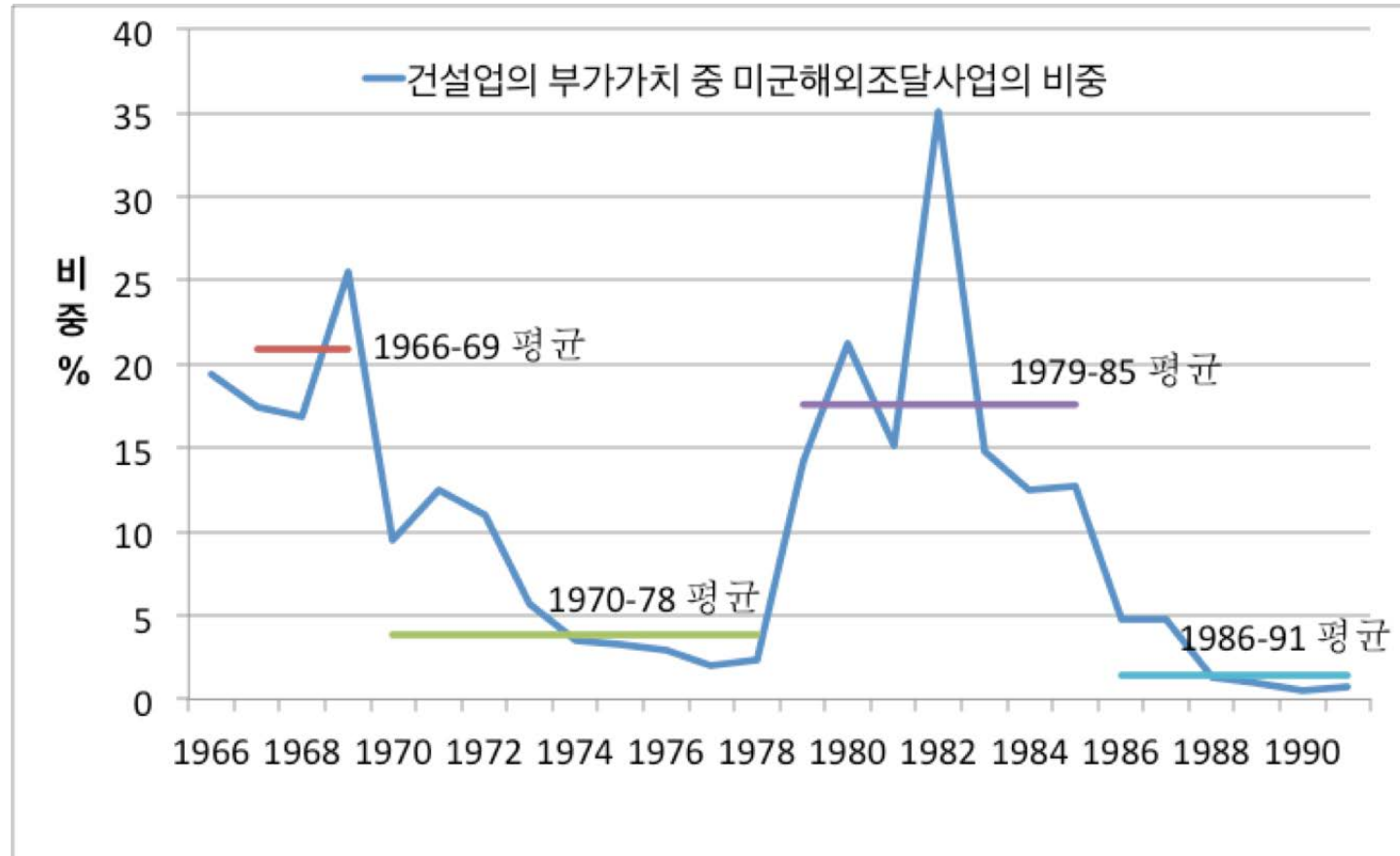
미군해외조달사업(OSP: Offshore procurement)

- 자료수집방법:

US National Archives database 중 Vietnam War and other 'Prime Contracts'에서 State를 Korea로 해서 찾은 자료 중 한국 기업 이름을 찾아 계산한 자료(Glassman and Choi 2014)

남한 기업의 베트남전 O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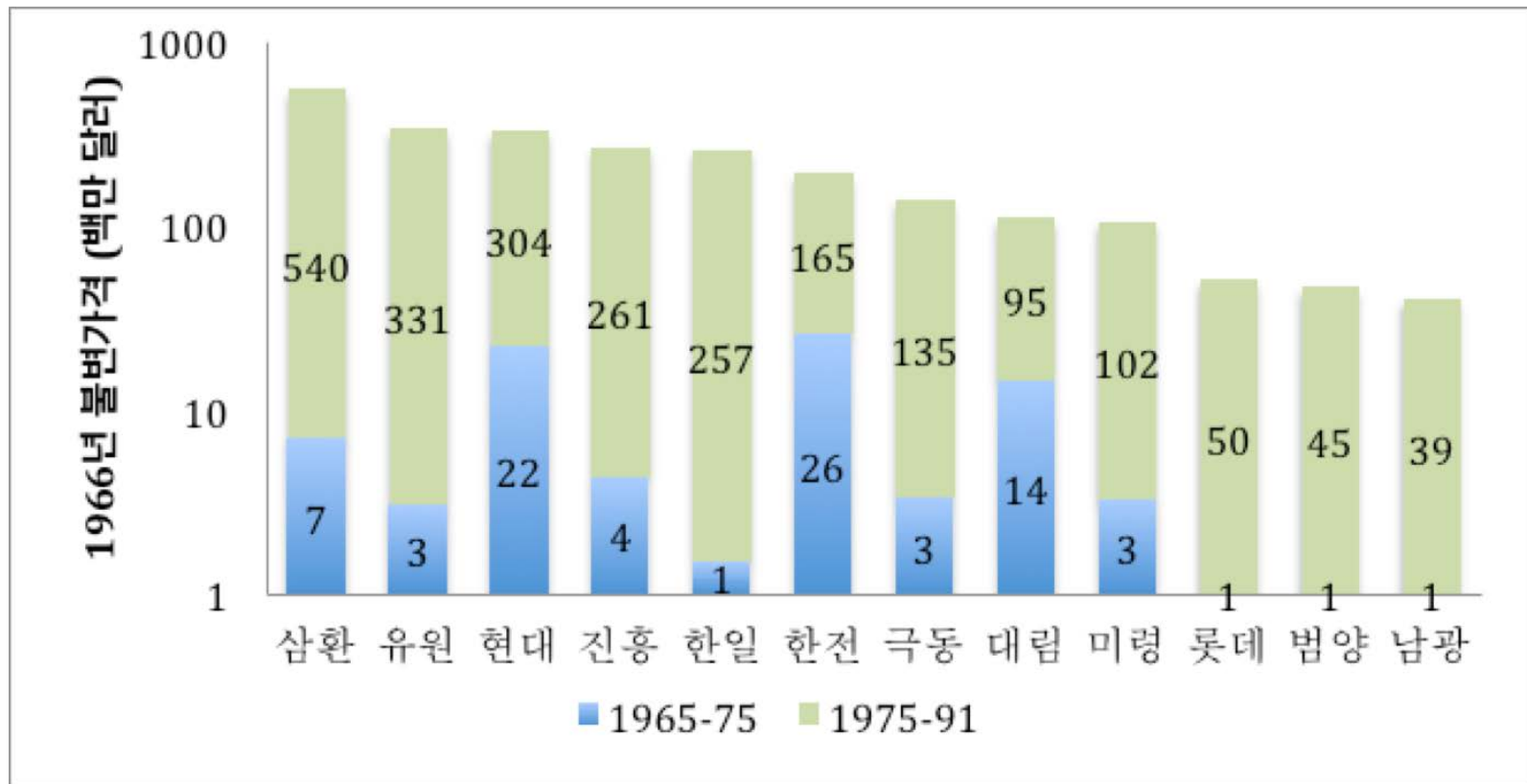
그림 1. 미군해외조달사업에서 한국 건설업이 벌어들인 액수



출처: Glassman and Choi 2014

남한 기업의 베트남전 OSP

그림 1. 베트남전 관련 미군해외조달사업의 한국상위건설업체



출처: Glassman and Choi 2014

현대기업 성장사

“ 이봐 해보거나 했어”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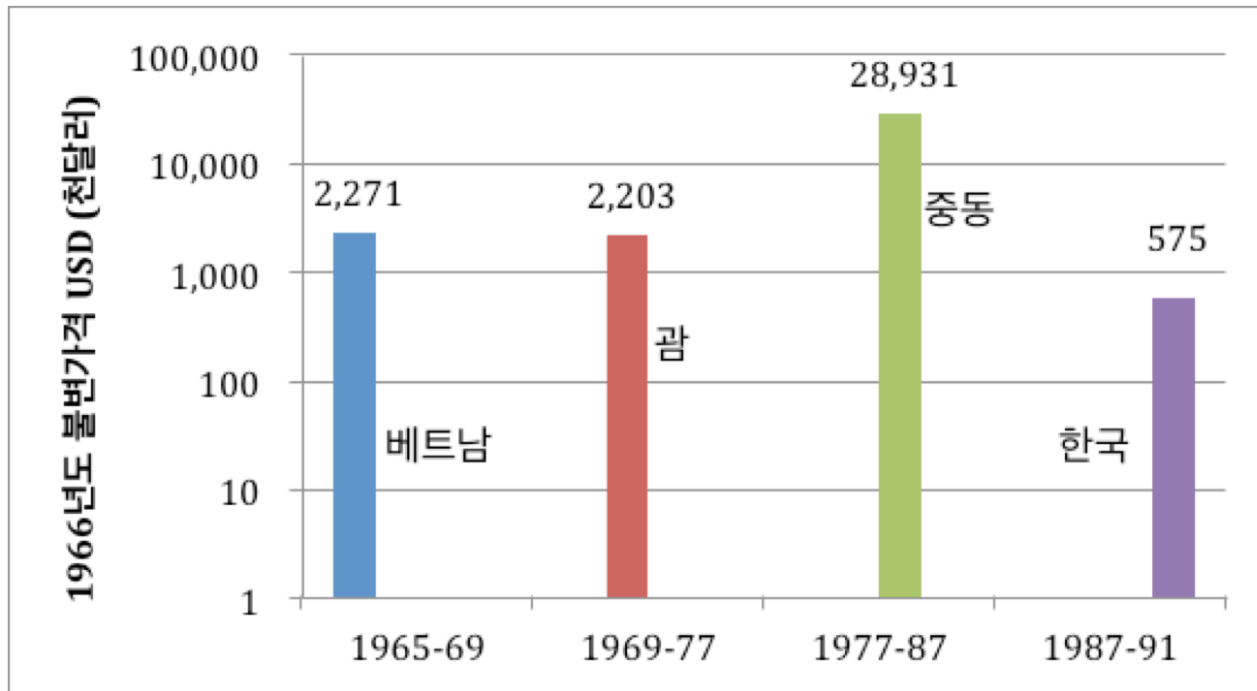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dZjpEcMmcYk>

전쟁과 기업의 성장

- 현대의 성장:
 - 한국전쟁: 활주로, 병영공사, 다리, 항만 보수, 발전소
 - 베트남전: 파타니-나리티왓 고속도로, 캄란베이 군항공사
 - 중동전쟁 전후 복구사업 : 중동특수(미군기지와 SOC)
 - 현대건설, 중공업, 상선으로의 계열 확장 과정
- 해외건설 사업 성공의 핵심은 미군해외발주사업의 경험과 그로 인해 맺은 정치, 군사, 경제 네트워크
- 현대기업의 성장사를 통해 초국적 계급연합(군사-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연결망)을 분석

현대의 미군해외조달사업(OSP)

그림 1. 현대건설의 미군해외조달사업(OSP) 연평균 계약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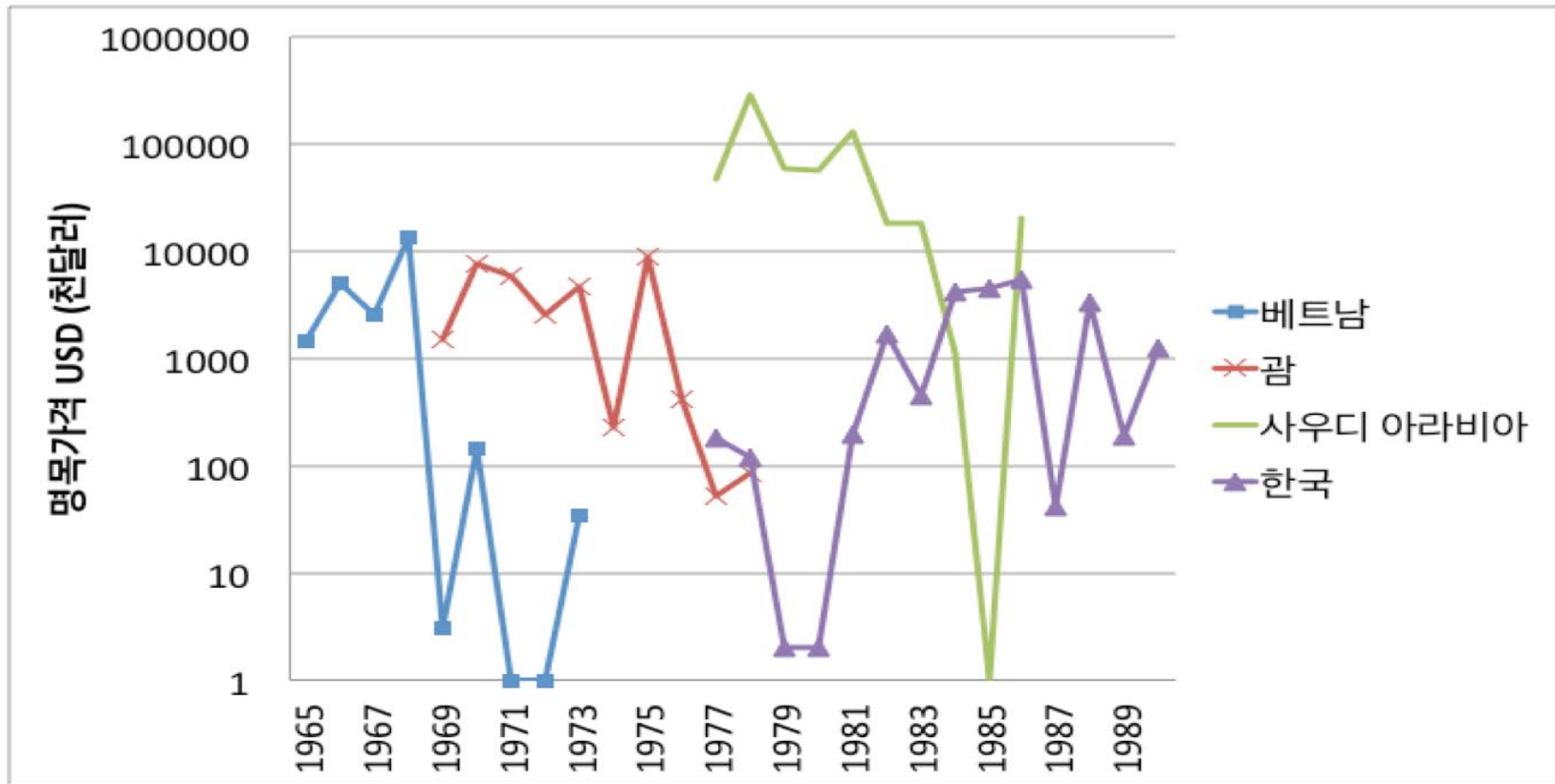


- 특징
- 막대한 액수
- 지속적인 공급

출처: Glassman and Choi 2014

현대의 미군해외조달사업(OSP)

그림 1. 시기별 현대가 미군해외조달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액수



출처: Glassman and Choi 2014

베트남전 이전 현대의 성장 과정

- 한국전쟁에서 주한미군시설공사(MAP)를 통한 성장
 - 미8군 군납업체로 도로포장공사, 평균 50%내외의 높은 수익율 (수의계약→ 57년 지명입찰경쟁)
 - 정인영의 경력(미소공동위 미국측 통역관, 한국전 당시 미8군 공병감실 근무)
 - 전시공사: 52년 아이젠하워 방한시 윤현궁 화장실, 유엔군 묘지 잔디 단장 등
 - 양적: 국내기업 중 가장 많은 공사실적- 활주로, 군대막사 452만달러(57-59년) , 59년 인천 제1도크 복구공사(단양시멘트 자금원), 삼척화력 하청, 61년 호남비료 화력발전소,
 - 질적: “근대적 건설업체로 탈바꿈하는 계기”- 미군 공사 경험으로 시방서, 근대적 공법, 기계화, 견적능력 등 품질관리, 공사관리, 국제계약에 대한 실무 능숙, 경영기법 등(현대기업사 1997, 음용기 인터뷰)

경쟁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인맥과 우연적 성취를 통한 성장

태국 파타니-나리티왓 고속도로 건설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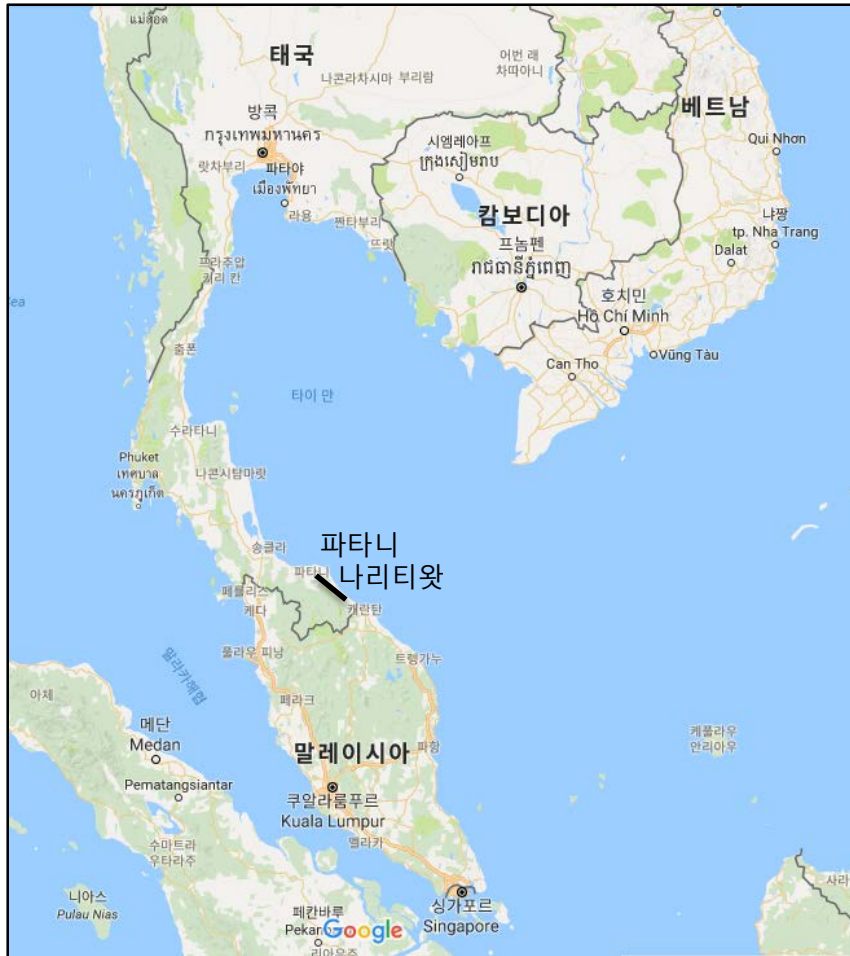


Lee Myung-bak outside a school in southern Thailand, c. 1966.

베트남전과 현대의 성장

- 첫 해외건설 공사: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실패
- 한국 기업에 태평양 초국적 계급연합으로의 편입을 보장한 문서: 브라운 각서
- 현대의 베트남전 공사 수주와 완료
- 베트남전 관련 공사를 통해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냉전연합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었고, 지리적으로, 다른 부문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태국 파타니-나리티왓 고속도로 건설 사업



- 4차선 98km,
- 1966.1착공 - 1968.5완공
- IBRD 차관 태국 정부 발주공사
- 목적: 미군의 주둔과 활동범위 확장
- 공사규모: 522만\$(15억원)

Road to overseas construction success starts in Thailand

(Korea JoongAng Daily, Mar 12, 2015)

Korea's seven major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1960s~90s)



1 Thailand
Pattani - Narathiwat Highway

- Worth: **\$5.4 million**
- Hyundai E&C (January 1966 - February 1966)
- It was first time a Korean builder received an overseas construction order. Challenges throughout construction included searing heat and heavy rains. The project was completed at a \$3 million loss to the company, but the experience Hyundai E&C gained from the work laid the foundation for further projects abroad.



2 Saudi Arabia
Al Ula - Kalba Expressway

- Worth: **\$24 million**
- Samwhan Corporation (December 1973 - April 1977)
- The first project for Korean companies in the Middle East, Samwhan Corporation won the contract on its sixth bid. Workers labored overnight using torches to meet the deadline, which had been set ahead of the annual Muslim Haj pilgrimage to Mecca.



3 Bahrain
Arab Shipbuilding and Repair Yard

- Worth: **\$130 million**
- Hyundai E&C (October 1975 - September 1977)
- The project involved construction of a dockyard to build oil tankers with a capacity of 500,000 tons each. It was jointly funded by seven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Late Chairman Chung Juyung recognized its significance and took leadership of the project.

- 1960 90년대 7대 해외건설 사업
- 1. 태국 파타니-나리티왓 고속도로
- 2. 사우디 아라비아 Al Ula-Kalba 고속도로
- 3. 바레인 아랍 조선소와 수리소 건설
- 4. 사우디 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 5. 리비아 대수로공사
- 6. 말레시아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 7. 이란 Katum 댐

태국 파타니-나리티왓 고속도로 건설 사업

- 사업 수주 과정 : 1963년 사이공 상수도시설공사 국제입찰에서 실패, 1965년 방콕지사 건립
- 정인영의 회고 : 현대는 주한미군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미국의 베트남전 전면 개입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건설시장이 형성되리라는 사실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할 수 있었다.”(현대 1997: 465)
- 수지타산: 2억 8,800만원 적자 (재정적으로 현대건설을 파산 상태로 만듦)
- 적자 이유: 기술적 낙후와 시공관리 미숙, 미군이 요구하는 장비 구입으로 적자

현대가 성공이라 평가하는 이유

- “해외공사의 시공능력 향상과 국제 신임도 제고라는 소중한 자산으로 충분히 보상받았으며, 이 자산은 70년대 국내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중화학공업 건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현대사 1997:465)
- 국제기준을 배움: 시방서, 기술, 경영, 인사관리 등
- 미공병단, 태국 정부 등 신뢰 획득: 태국 고속도로 6건, 매립공사 1건, 총 62억원 공사 수행
- 베트남전 관련 사업 수주의 바탕
-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설계 및 견적과 주요 시행사가 됨

현대의 베트남전 OSP



1966년 1월, 현대건설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캄란만
군사기지 건설 공사에
참여했다. 첫 해외 진출인
태국에서는 적자를
보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공사에부터는
해외건설에서도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현대 1997)

정주영, 캄란베이 해군기지



현대의 베트남전 OSP

표 1. 베트남전 공사실적(단위: 천달러)

발주처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수입
RMK-BRJ OICC MWK	준설공사		
	현대1호	1966-70	9,143.4
	현대2호	1967-69	3,758.3
	투덕항타공사	1967-68	177.6
	반호이 부두공사	1967-68	56.9
	감란소도시 건설공사	1967-68	4,701.3
	공사소계		17,837.5
VPA	세탁업	1968-72	1,704.7
계			6,622.3

출처: 현대, 1997, p. 470

현대건설 매출액의 26%, 수익의 77% (Amsden, 1989:266)

태국 공사와 베트남전 공사 비교

- 베트남전 공사의 수익율이 높은 이유

“미군 측과 맺은 계약조건에 의해 미군용역단의 일부로서 건설 공사상 필요한 자재 및 건설장비는 모두 미군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혹은 임대 받아 사용하였고, 미군 엔지니어들로부터 작업지시를 직접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음용기 2009:16).

베트남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모든 문서 양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미군부대 출입증을 직접 만들어 사용해 기자재반입을 자유롭게 하였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전쟁터이다 보니 모든 통제가 어수선하고 허술한 빈틈을 적절히 이용하여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현대는 미군의 용역단의 일원으로 대우받았다(음용기 2009; 인터뷰)

베트남전 OSP의 영향

1) 더 많은 미해군발주사업 획득➡나아가 독자사업 개척

표 1. 광 사업 (전체)

발주처	공사수(건)	매출액(달러)
미군발주공사(OICC)	22	35,421,275.95
광정부	7	6,226,446.07
일반기업	22	847,534.52
현대 자체	6	31,387,100.00
계	37	73,932,356.54

출처: 현대 1982: pp. 2056-2059

베트남전 OSP의 영향

1) 더 많은 미해군발주사업 획득➡나아가 독자사업 개척

표 1. 괌 사업 (현대 자체 사업)

현대자체 사업			
공사명	계약금액(달러)	기간	사업내용
몽몽주택	733,400	70. 3-70.11.10	22 세대(중상층용)
마파스 주택	2,786,700	70. 8-71. 5.31	98 세대(중류용)
산타 리타 주택	7,589,000	71. 5-72.12.31	210 세대(중류용)
바리가다 주택	16,194,000	72.11-75. 3.31	264 세대(중류용)
현대 콘도미니움 1 차	1,030,000	74. 6-79. 8.15	30 세대
현대 콘도미니움 2 차	3,054,000		
계	31,387,100		

출처: 현대 1982: pp. 2056-2059

베트남전 OSP의 영향

2) 해외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SOC사업으로 확장

- 경부고속도로 건설 :

- 국제기준의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는 유일한 기업
- 건설 기획 단계에 참여: 건설부650, 서울시180, 현대 280억원, 육군공병감실
- 서울-수원 수의계약, 압도적 비중(시공량 3/10, 동원인력 23.7%, 공사비 23.2%)

- 국내주택건설

- 광에서 습득한 PC공법과 조립식 주택건설 경험(권기태 인터뷰)

- 서울 지하철공사

- 파푸아뉴기니 라무 수력발전소 공사에서 습득한 NATM(신오스트리아 터널공법), CPM공법 등

베트남전 OSP의 영향

3) 조선과 중공업으로 사업 영역 확장

- 초기 자본금 가능: 베트남전 사업 축적 자본액 1.8억달러
- 기계장비 보유량(68년) 약 17억원: 조선소 건설에 추가 장비 구입이 필요없을 정도
-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 보유

동아시아 군사, 정치, 경제 네트워크

- 베트남전 OSP는 냉전연합을 구체화시킴
- 국내: 기업 간부로 영입
 - 장우주(브라운 각서 한국 실무 책임자, 75년 현대건설 사장)
 - 정문도(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장 및 운영차관보, 공업단지 관리청장, 경부고속도로 건설추진위 재경반장, 70년 영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사장)

- [기업비사] 49회 : 현대중공업 정주영,
500원으로 일군 대한민국 조선사

<https://www.youtube.com/watch?v=Wqf05NgPlp4>

현대건설이 재벌이 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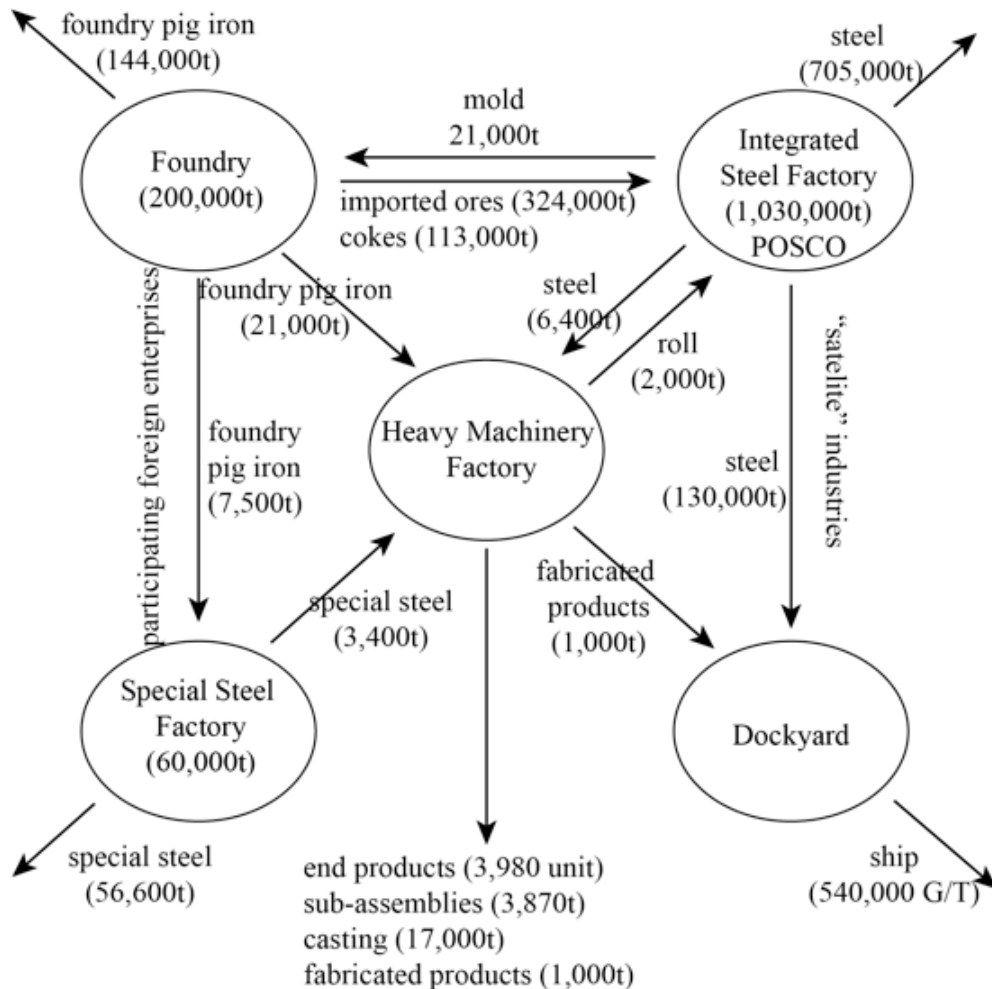
- 현대가 중공업과 자동차, 상선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
 - 미군해외발주사업을 통해
 - 기술적으로 미국 표준을 습득
 - 사업적으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하청기업 경험을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
 - 국가 경제 공간 혹은 일본 중심의 생산네트워크를 넘어 미국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냉전연합에 편입됨

현대가 조선을 택한 이유

- 현대 기업 입장에서 :
 - 건설 기술을 이용 가능, 시너지 효과 최대
- 한국정부의 요구와 지원:
 - 4대 핵심 공장 건설안에서 조선 부문 사업자로 현대건설을 선정
 - 포항제철이 완공되면 생산된 철강을 소비할 중화학공업 발전안이 필요
 - 일본이 모델: 방위산업의 중심에 조선공업, 1968년 세계총건조량의 50.8%을 건조

중화학공업화와 재벌의 성장

(4대핵심공장 건설안)



-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정부의 첫 청사진(1970년)
- 계획과 집행의 분리: 국가는 계획, 대기업은 계획을 집행
- 일본에 의존(자본, 기술, 판매 등)
- 대기업을 실행 주체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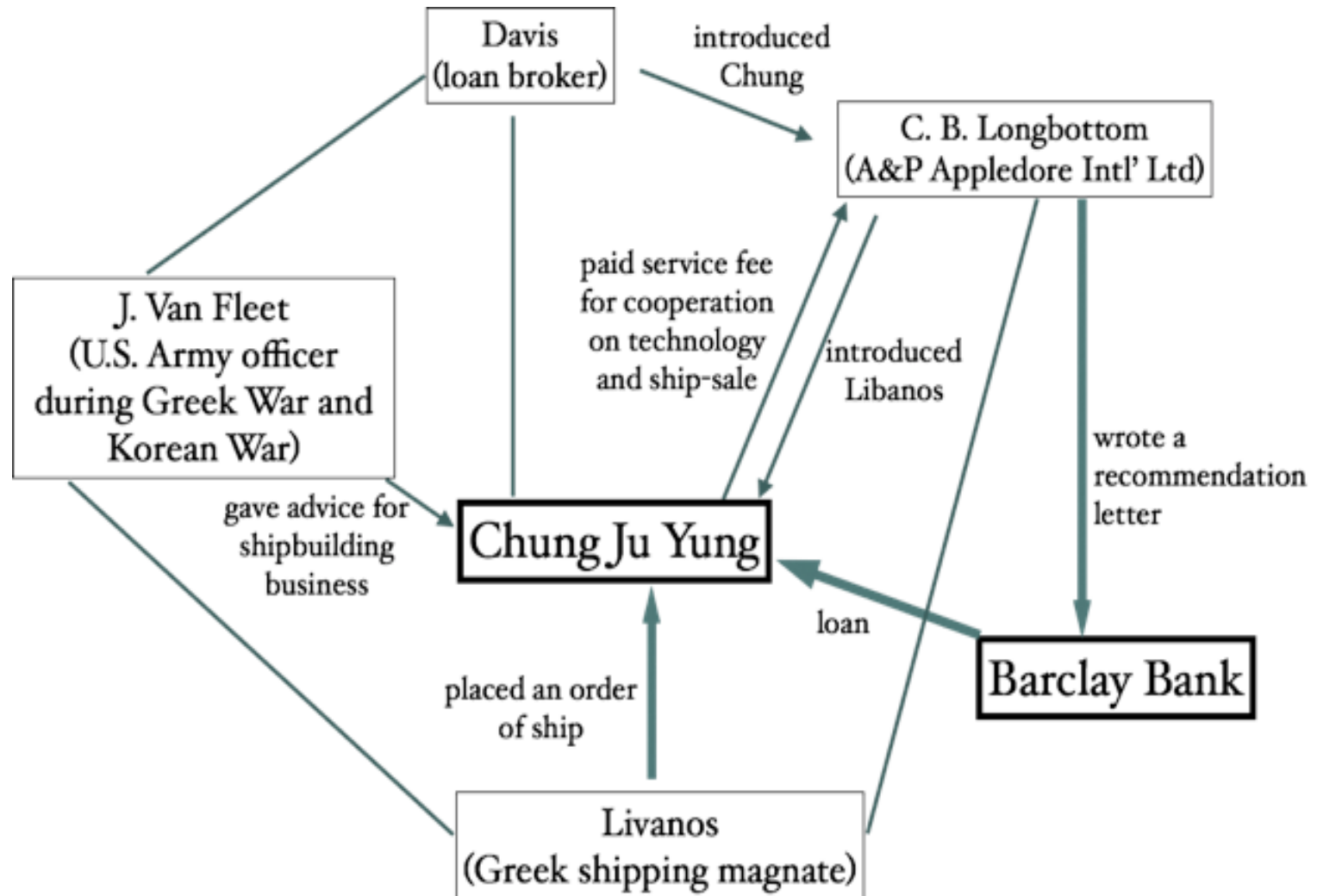
현대 조선의 성공 이유

1) 자금조달의 성공

Source	Amount (1,000 USD)	Ratio (%)
Hyundai	30,480	23
Korean State	21,020	16
Foreign Loan	79,770	61
Total	131,280	100

- 베트남전 미군해외조달사업으로 번 돈: 178, 376,000 USD
- 바클리어 은행으로부터 차관 성공: 현대가 이전 사업을 통해 형성한 냉전연합의 힘

현대와 냉전 연합



현대중 · 리바노스, 3대 이은 '45년 우정'

(한겨레, 2016.6.13)



게오르게 리바노스 선엔터프라이즈 회장(왼쪽)과 정기선 현대중공업 총괄부문장(오른쪽)이 13일 새 원유운반선 명명 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James Van Fleet

- 한국전쟁 주한미군(8사단) 사령관(1951년-53년)
- 한국육군사관학교 창설의 아버지
- 그리스 내전 미군 고문관(1948년-50년):
 - 그리스 왕가의 반민주적 프로젝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여왕 Frederika 및 그리스 자본가들과 아주 강한 유대관계를 맺었다(Wittner 1982)





▲1951년 9월 국군 훈련장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이 트미 8군 사령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Van Fleet's Son Reported Missing

SEOUL, Korea, April 5 (AP)—Lt. James A. Van Fleet Jr., 26-year-old only son of the U.S. Eighth Army commander, was listed by the Fifth Air Force today as missing in action, at the United Nations.

They were diverted from their target, a rail center, by fog and low clouds.

At 2:15 a.m., Friday, Van Fleet reported his fuel supply was too low to permit a strafe on a secondary target. He took the last mission on a B-26 twin-engine

jet bomber and was shot down. He was last seen at 4:30 a.m. in a burning crash site. The plane was destroyed. The pilot was killed.

John Collins, Army spokesman, said the young man was born in Long Beach, Calif., and his wife, Mrs. Van Fleet, lives in New York City.



LT. JAMES A. VAN FLEET, JR.



▲벤 프리트 장군의 아들 지미의 실종 보도 신문기사. 왼쪽은 지미가 탑승했던 B-26 폭격기의 모습



WHILE VISITING GENERAL VAN FLEET IS VISITING GENERAL VAN FLEET (left) showed a smiling child as a Korean orphan, who has been adopted by the general. The Eighth Army commander was visiting Seoul's Columbia orphanage to help distribute some of the \$11,000 worth of gifts sent to Korean children by U.S. Armed Forces at home. (AP Wirephoto) (Photo by AP) 1951

James Van Fleet

- 한미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 1953) 1957년 'Korea Society'를 만들고 의장이 되었다(Braim 2001)
- 한미 간 비공식 대사로 활동
 - 박정희 군사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므로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밝힘
 - 1962년 케네디 정부의 민간자문기구 '한국경제 조사단' 단장으로 한국 방문, 미국정부에 기술과 자금지원을 요청(류상영, 2002:235).

울산공업단지 건설에 관여

Van Fleet은 군대에서의 위상과 유명세를 통해 그리스, 한국, 미국 사업가들의 광범한 네트워크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폭스, Fluor Co(건설), 몬산토, 모토롤라, 레이놀드 메탈 등의 회사 임원으로 한국 자회사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Glassman forthcoming)



현대 조선의 성공 이유

2) 정부안의 대체를 통한 주도권 확보

	Government's Original Plan (1970)	Hyundai's modification (1973)
Shipyard's capacity	DWT 200,000	DWT 1,000,000
Main purpose	Import substitution Domestic-oriented	Export-oriented
Capital financing for the plant construction	Joint venture with foreign firms	Foreign loan (to secure control of the company)
Technology transfer partner	Japanese shipbuilders	European shipbuilders

현대 조선의 성공 이유

3) 현대 건설은 현대 중공업의 전제조건

- 현대 건설의 OSP로부터 번 돈이 창업자금
- 현대 건설의 기술, 장비, 인적 자원, 사업능력, 네트워크가 현대중공업에 응용됨.
- 현대건설의 중동 사업을 통한 주문 확보 (예: 주베일 공사에 필요한 철구조물, 크레인 등)
- 현대 상선의 설립: 초기 인수가 취소된 선박 3척 + 현대건설의 중동 프로젝트를 위한 물류

현대 조선의 성공 이유

4) 현대 건설이 냉전 연합에 편입되어 가능

- 현대 중공업의 설립과 성장은 현대건설 없이는 불가능
- 현대 건설의 중동 사업이 없었다면 현대의 재벌로의 성장은 불가능

Projects	Location	Ordering Organization	Construction period	Contract value (million, USD)
Arab Shipbuilding & Repair Yard	Bahrain	OAPEC	1975-77	144
Saudi Naval Expansion Program, Offshore Facilities	Saudi Arabia	Saudi Arabia Minister of Defense US Corps of Engineers	1975-78	220
Bandar Abbas Mobilization and Training Shipyard	Iran	Persian Gulf Shipbuilding Corporation	1975-76	10
Jubail Industrial Harbor	Saudi Arabia	Saudi Ports Authority	1976-79	940

바레인인의 아랍 수리조선소 사업

- Sir Alexander Gibb & Partner 의 하청기업으로 참여
- 입찰기간이 지난 후인데도 입찰 참여 기회를 얻음.
- 선정된 이유는 본사가 일본과 경쟁관계인데 현대는 유럽 기반의 조선기술을 보유.
- 이후 중동 사업 진출의 기반이 됨



주베일 미국해군기지 공사



사우디 아라비아 Jubail 산업항 공사



- 70년대 중동지역 군사시설의 발주처:
미육군공병단(COE)
- 1978년
대외계약액 세계 4위의
건설회사로 성장

INFRA- STRUCTURE

'신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자연'이라는 말이 있다. 땅과 바다는 자연을 양분하는 가장 큰 단위의 요소이며, 인류 문명의 출발은 대부분 이 둘이 만나는 해안(海岸)에서 시작됐다. 해안은 땅의 끝이자 바다가 시작되는 출발점. '땅의 존재'인 인류에게 오랫동안 해안은 세상의 끝이었지만, 점차로 또 다른 땅, 다른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넘어서다

01

주베일 산업항 공사

- 현대는 미공병대(COE) 주베일 해군기지 해상공사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나와프 왕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주베일산업항 공사수주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현대 1997: 529-32).
- “주베일항공사 입찰과정에 본인은 실무자로 참여했는데 이미 입찰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입찰 내용은 윗선에서 다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윗선은 현대 정주영 회장만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왕가)와 미군공병단의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해서 말한다” (음용기 인터뷰)

주베일 산업항 공사

- 입찰자격을 2천만 달러(한국의 외환보유고 넘는 액수) 입찰금을 내는 기업으로 한정
- 자금조달
 - 바레인국립은행이 1천만 달러 융자
 - 바레인은행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요청으로 사우디상업은행이 1천만 달러 융자
- 현대가 중동산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미군산복합체에 기반한 냉전연합에 편입되었기 때문.

현대 조선의 성장과 발전주의 국가

- 현대가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 발전주의 국가의 효과적 규율?
 - ➔ 발전주의 국가의 정책 실패 속에서 재벌이 국가 전략을 대체하면서 재벌 주도의 계급 연합을 형성
 -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
 - ➔ 베트남전, 중동특수 등 미국 주도의 냉전연합이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성과

한국 경제 성장의 원인

-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
 - 1) 국익 우선의 발전주의 국가의 규율 : 박정희 신화 만들기
 - 2)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 현대 정주영의 거북선
- 국가와 기업,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대립된 두 개의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것의 문제

문제는 국가와 기업 중 권력 관계의 우위에 누가 있는지가 아니라, 자본축적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연합을 형성하며, 그 연합의 성격을 형성하는 주 요인으로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 국가 스케일 중심의 지리적 상상력의 한계 : 계급연합의 초국적 성격을 간과

현재의 문제: 현대중공업과 이스라엘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PS) welcomes Hyundai's ending its ties with Automotive Equipment Group(AEG). In the last ten years we've seen Hyundai excavators imported by AEG used to destroy Palestinians homes.

<http://www.bdsmovement.net/2013/hyundai-ends-relationship-with-home-demolition-equipment-firm-10469#sthash.6EvrGwo9.dpuf>



- 팔레스타인 거주지에서 현대 굴삭기 철거현장 2014,
- <http://whoprofits.org/company/hyundai-heavy-industries>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 한국 재벌의 성장은 전쟁과 직접 연관된 미군해외발주사업을 통해 가능했다.
- 냉전 질서 속에서 미국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하는 초국적인 군사, 정치, 경제적 계급연합이 만들어지고 이 냉전연합에 편입됨으로서 한국 재벌은 성장가능하였다.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

- 베트남전에서 피흘린 대가, 땀흘린 보상이 현재의 한국을 만들었다?
-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과 기술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 이라크전쟁 복구사업에서 돈 버는 한국기업을 어떻게 보아야하나?
- 군사기지, 민간기업, 경제자유구역이 한 지역에 공존하는 걸 어떻게 보아야하나?



황해경제
자유지역

캠프
험프리

고덕국제
신도시

캠프햄프리

황해경제
자유구역

